

# 탈근대적 주체의 구성과 여성 타자 인식

- 채만식 소설을 중심으로

김연숙

## 국문초록

이 글은 채만식의 소설에 나타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남성 주체가 여성타자를 인식하고, 탈근대적 주체로 구성되어나가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남성 주체와 여성 타자의 관계에 주목할 때, 보편적이고 성숙한 남성이 경험하는 식민지로서의 근대적 현실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현실의 의미는 재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억압된 식민지적 남성 주체는 여성 타자의 이질성을 배제시키고, 자신의 영역으로 동일화시킴으로써, 아내는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되는 양상이 드러난다. 또 여성 타자는 '아버지-남편 - 아들'이라는 남성적 질서 체계에 순응하고, 자신의 개별성을 스스로 제거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편-아내의 관계에서, 여전히 남편의 영역에 아내가 포섭되어 있지만, 미약하나마 타자의 이질성이 드러나는 경우, 그것은 억압된 주체의 저항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 내에서 아내가 제한적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든지, 남편과 다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타자의 이질성을 발현하는 것이다.

여성타자가 자신의 이질성을 발현하고, 남성 주체가 그 타자와의 거리감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체와 타자는 근대적 동일성의 지반을 벗어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비록 그 가능성이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수준에서 주어지거나, 여전히 계몽적이고 우월한 주체의 위치에 의해 굴곡을 겪게 된다할 지라도, '차이'에 대한 인식은 변화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주체, 타자, 탈근대적 주체, 동일성, 차이

## 1. 서론

채만식은 1925년 등단 이래, 현실 비판의 탁월함, 풍자적인 언어 활용, 전 통문학과와의 연계성, 지식인의 내면 반성·성찰 등의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온 작가이다. 특히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당시 활발해진 리얼리즘 논의에 힘입어 식민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과 비판을 행한 작가라는 측면이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이후, 리얼리즘적인 성과에 대한 연구는 채만식을 논하는데 있어 거의 일반화된 방식이 되었다.<sup>1)</sup>

리얼리즘적 연구 방법은, 일제 강점이라는 부정적 현실이 국가와 민족은 물론 개인의 존재근거를 위협하며, 정체성을 무화시키는 것이었다는데서 논리적 입지점을 마련하고 있다. 일제 강점의 경험은 타의에 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원초적인 경험인 부조리의 경험<sup>2)</sup>이나 마찬가지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경험은, 개별 주체들에게

1) 채만식 문학연구를 총괄적으로 조명한 논문들에 따르면, 채만식은 사회적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적 개혁주의자, 민족주의 사상의 소유자, 허무주의자, 현실주의적 전략의 실행자 등으로 해석되는데, 이런 관점이 대부분 리얼리즘적 방법론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천화, 『채만식 비평사 연구』(중앙대 석사, 1986) : 윤영옥, 「연구현황과 과제」, 『채만식 문학연구』(한국문화사, 1997) : 이현식, 「채만식은 학문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는가」,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참조).

2) 레비나스(『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에 따르면, 부조리에 대한 경험은 존재 자체에 대한 무력감의 경험이고, 주도권의 상실이며, 자율적인 의미부여가 되지 않는다.

거의 동일한 것으로, 세계는 단일한 부정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해 보였다.

그러나 문학의 영역에서 대상(경험, 현실, 세계)은 주체에게 직접적으로 경험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건이나 타자를 매개로 하여 주체에게 경험된다. 이때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아니라 비대칭적 관계<sup>3)</sup>이다. 문학 작품의 담론체계는 이러한 비대칭적 세력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은, 주체와 타자가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다. 이 관계에서는, 단일하고 고정된 의미의 발견과 해석이 아니라, 어떻게 주체가 구성되어가는지,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주체가 타자를 인식해나가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채만식 소설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주체는, 작가의 자전적 경향이 깊이 투영된 남성 주체이다. 이 남성 주체에 상응하는 여성타자는 대부분 '아내'로서, 일제 강점 하라는 식민지의 경험과 봉건적 가부장제의 경험이 중첩된 공간에 놓여있다. 남성 주체와 여성 타자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주체가 구성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sup>4)</sup> 남성주체와 여성타자의 관계에 주목할 때, 보편적이고 성숙한 남성이 경험하는 식민지로서의 근대적 현실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는,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현실의 의미는 재구성된다. 이는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말했던 것처럼 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감시와 훈련을 받으며 교정되어야 했던 사람들- 광인, 어린이, 피식민자 그리고 여성에게 주변적인 위치밖에 부여하지 않았던 이항대립의 강제를 해체하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할 것이다.

3)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탐구 1』 (새물결, 1998).

4)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채만식의 해방 이전 작품 중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두드러진, 「산적」(1929), 「폐배자의 무덤」(1939), 「근일」(1941), 「민족의 죄인」(1944), 「처자」(1948)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 2. 본론

### 1) 식민지적 현실에 억압된 남성 주체와 배제된 여성 타자

제국주의라는 동일성의 담론은, 식민지 조선에서 강력한 구심력을 행사했고, 그 아래에서 여성 타자들은 자신들의 이질성을 채 드러낼 수도 없었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극심한 가난은, 여성 타자를 억압하고, 소멸시켰으며, 심지어는 동일성의 담론 내로 포획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남성 주체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 그들은 근대적 주체이면서, 식민지적 주체였기 때문이다. 남성 주체는 제국주의 담론에 억압되었고, 그 동일성 논리에 포획되었다.

억압된 식민지적 남성 주체의 양상은 여성 타자의 것과는 다르다. 억압된 여성 타자는 우선 자신의 이질성을 상실하고, 동일성의 구심력으로 포획된다. 그러나 남성 주체는 억압으로 인해, 자신의 영역에 고립되고, 동일성의 영역은 견고하게 지켜진다. 이른바 주체 중심주의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주체 중심주의<sup>5)</sup>란 이질적인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하면서 동일성을 만드는 원리를 말한다. 주체중심주의의 동일성 논리는 두 대립항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을 억압해 동일성을 만든다는 점에서 대립적 사고라 할 수 있다.

「근일」(1941), 「처자」(1944)는 작가 자전적 경향이 짙은 인물을 남편으로 설정하고 그 아내의 관계를 통해, 억압된 식민지적 주체의 양상을 잘 드러내준다. 남편은 가난한 식구들을 책임져야 할 가장의 임무를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문학적인 성과도 변변치 못한 소설가이다. 무력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남편은 자신의 고뇌에 빠져 있을 뿐, 타자와의 관계는 두절되어

5) 나병철,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문예출판사, 2001) : 주체 중심주의가 공동체의 것으로 확산되었을 때, 구성원들은 전체주의적 이상에 의해 매개되어 집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역사상 전체주의적 융합의 가장 극단적이고 공포스러운 모습이 바로 나치즘과 파시즘의 예라고 레비나스는 지적한다.(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있다. 오히려 아내를 자신의 영역에 종속시키고 만다.

「근일」의 ‘나’는, 소설쓰는 일로 자신의 직계 가족과 셋째, 넷째 형님의 가족까지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 형제들은 이것저것 일거리를 벌려보지만, 잘 되어나가는 듯 하다가도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만다. 계속된 실패에 식구들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꿈자리도 사납고〉, 〈저녁마다, 고 방정맞은 짐승(여우-인용자)〉이 울어대는 불길함 때문에, 아내는 손윗동서와 함께 고사라도 지내보길 원한다.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너댓 번이나 말을 빙빙 돌리다가, 고사를 지낼 테니 〈못본 채하시구, 상관 마시우우〉라며, 그저 묵인만이라도 해줄 것을 바란다. ‘나’는 ‘무단히 여세가 거칠’어진 말로 여섯 번씩 반대와 핀잔<sup>6)</sup>, 꾸중을 하며, 고사를 반대한다. 무안해진 아내가 ‘시치름하고 있다가 하릴없이 도로 나간’ 후, 막상 ‘나’는 마음이 바뀐다. 자신도 불길한 느낌이 들었고, 고사라도 지내면 싶었던 것이다.

혼자 누웠느라니 문득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걸린다. 고사를 지냈으면 좋을 성싶다. 꺼림해 못하겠다. 그야말로 상관<sup>7)</sup>을 말고 못 들은 채할 것을, 두말도 못하게 으박질러 버린 것이 후회가 난다. 본체만체할 테니, 주작대로들 지금이라도 설도를 했으면 은근히 고맙겠다.

그들(형수와 아내-인용자)은 그러나, 내가 한번 금한 것을 부득부득 우겨가면서 하려고 하기엔, 너무도 나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순종도 이런 때만은 긴치가 않다.

에당초에 내 동의를 얻잔 건 무어든고 하여, 의지와 신체가 한가지로 슴뭉탕이 같은 안해란 위인이 미워 못하겠다.

이래저래 짜증만 더 난다. 볼먹은 소리로 안해를 쳐볼러, 배쌍화탕을 지어 오

6) 남편은 ‘고살 지내서 일이 잘될 테 같으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왜 있어?’라며 빈정거리거나, 자신의 어머니가 40년 동안 치성을 드렸던 일까지 들추어내며 ‘비선을 해서 복이 돌아오구 할 테 같으면 어머니가 드리신 정성 하나만 가지구두 우리 육남매가 그 복 다야 주쩔 못해’라고 아내에게 쏘아붙인다.

래서 달여들이라고 지청구를 한다. 그러저래, 고사 지내잔 말을 한 것이 동티가 난 줄만 알고서 영 생심을 못할밖에.<sup>7)</sup>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일방적이다. 아내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은 말할 엄두도 못낸다. 고사를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도 <형님이 그리시는 데요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할 만큼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살핀다. 남편·가장이라는 권위때문에 쉽사리 자신의 결정(고사를 지내서는 안된다)을 반복하지 못해서 생긴, 남편의 <짜증>과 <지청구>도 아내는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찢절매기도 한다. 이러한 아내의 태도는 순종, 착함, 순진함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남편은 이 상황에서는 순종도 무가치하고, 아내는 <의지와 신체가 한가지로 솜뭉텅이 같>다고 평가한다. 아내가 가진 모든 미덕도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일치해야만 가치있는 것이고, 설사 자신의 태도를 명확히 밝히지 않더라도 아내는 미리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체중심주의는 궁극적으로는 일제 강점이라는 억압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스스로 타자를 억압해 동일성을 확보하는 데 머무를 뿐이어서, 그 주체 또한 식민지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도 피할 길이 없다. '일제 강점 - 억압받는 주체 - 주체 중심주의 - 주체 중심주의의 정점(제국주의, 일제 강점) - 억압받는 주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따름이다. 주체는 타자의 이질성을 인식함으로써, 제국주의 담론으로부터 벗어나는 원심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무력한 식민지 지식인의 물질적, 정신적 상황이 섬세한 묘사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전적인 토로에 그치고 만 것은, 결국 주체중심주의의 반복적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주체중심주의가 남편-아내의 관계에서 가장

7) 채만식, 「근일」, 『채만식전집』 6 (창작과 비평사, 1989).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근일」에서 남편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셋째, 넷째 형과 아우(남편)의 관계에서 작가는 형들의 입장을 거의 대변하다시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서술 태도 또한 긍정적이고 대단히 호의적이다.

형들은 <수다한 권술을 거느리고서>, 아우를 고생시킨다는 <다른 어떠한 것에도 비기지 못할 가장 애처로>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며, 신색이 나빠지는 아우를 위해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손수 챙기고서도 목메어 한다. 형들의 자조섞인 한탄, 아우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사랑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아우는 막내라는 이유로 받았던, 극진한 부모의 사랑을 형에게서 다시금 느끼며, <가슴에 차오르는> 감동을 받는다. 더 나아가 형들은 동생의 고귀한 예술 세계를 긍정하는 사람들이다. 문학이니 예술이니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 그들은 동생의 일을 <세상에 대하여 끔찍 자랑스러하는 사람이요,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요, 겸해서 잘 되게 받들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형수들은, 작품 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나’를 보살피고 가장 잘 떠맡드는 아내는 남편이 그 존재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이다. 「처자」의 남편은, 아내에게만 국한된, 자신의 일방적인 태도를 아예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

남의 앞에 나가서는, 심지어 강변의 장작장수한테까지도, 걸핏만 하여도 주눅이 들어, 억지는 고사요, 필요 혹은 떳떳한 의사의 표시나, 자아와 사리의 주장을 변변히 하지 못하곤 하는, 천하의 소심 용졸한 주변이었으나, 다만 집에서 아내에게만은 썩 소리 있고 침착하고 능청스럽고 한 달변가(사실은 궤변가)일 수가 있었다. 세상에 무섭지 않은 사람, 억지와 궤변을 받아주는 사람, 이를테면 만만한 사람이라곤 오직 그 사람밖에 없었다.<sup>8)</sup>

8) 채만식, 「처자」, 『채만식 전집』 8 (창작과 비평사, 1989).

떨감을 사러 나간 '나'는, 너무 작은 양이어서 팔 수 없다는 장사치의 거절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얼굴이 화트 달고 무덤>할 뿐이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가난한 서러움을 되새기며, 껌짜를 떨감으로 쓰기 위해 부수기 시작한다. 아내 앞에서야 비로소 남편은, 이것저것 다 부셔서 쓰고, 책상은 수입의 도구니까 제일 마지막에 부수면 된다는, 임시방편책도 못되는 의견을 줄줄 늘어놓는다. 게다가 껌짜 가장자리 생철띠가 걸리적거리자, <무릇 존재한 것의 가치의 변화란 이대지 무상한 법>이라고 껌변을 늘어놓기까지 한다. 가재도구를 부수어 떨감으로 차례차례 쓰면 된다는 배짱, 껌변을 늘어놓는 능청스러움을 남편이 다른 곳에서 조금이라도 발휘할 수 있다면, 한층 생활이 수월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작은 양이라도 장작을 사올 수 있었을 테고, 일꾼을 구하지 못하는 고생도 많이 줄어들 터이다. 그러나 스스로 인정하는 바, 남편이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이다.

## 2) 봉건적 가부장제의 경험과 여성 타자의 억압

「근일」, 「처자」는 식민지적 현실에서 드러나는 남성 주체 중심주의가 강조되어 있다면, 「폐배자의 무덤」(1939)에서는 억압당하고 배제된 여성 타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폐배자의 무덤」에서 경순은 남편의 심기를 헤아릴 줄도 알고, 근심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사랑스럽고 착한 아내였다. 이때 모든 생활의 중심은 남편이었고, 남편의 사랑이 경순의 절대 목표이기도 했다.<sup>9)</sup> 그러나 식민지 지식인으로써 무력하고 왜소해진 남편 종택은 자살을 택함으로써 스스로를 소멸시킨다.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던 타자는, 주체의 소멸 후 일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듯 한다. 남편의 죽음 이후 경순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본다. <내 자신의 나인만큼 그러므로 인제서부터는 하나의 엄연한 실제 문제로 나를

9) 경순의 결혼 생활은, '고이 자라 **확창**으로부터 이내 가정으로 옮겨앉았을 뿐이라, 생활의식이라는 것도 단지 남편을 사랑하면서 그의 사랑에 고스란히 파묻히는 그것 하나가 주장이요, 그것이 절대요 했었다.' 고 서술되고 있다.



‘생활’ 해야 한다는 경순의 변화는, 추상적이기는 하나, 남편의 아내로서가 아닌, 자기자신을 바라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덕분에 경순은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충격을 가라앉히고, 현실적인 안정을 되찾는다. 이후 유복자를 낳은 경순은, 아이라는 존재에 접하며, 앞서의 추상적인 변화보다 한층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그것은 이게 내 자식이거나, 황차 외로운 홀어미의 소중한 자식이거나 하는 타산으로 하여, 위정 그리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더구나 옆에서 누가 그걸 시킬 머리도 없던 것이요, 단지 샘솟듯 끝없이 절로 솟는 애정으로부터 우러나는 노릇이었다.

이 주관을 한 번 객관했을 때, 경순은 다시 새로운 만족과 안심을 얻었다.

그는 일찍이, 잘 생활하리라 했었다. 그런데 본즉 저는 잘 이상으로 잘 생활하고 있던 것이다. (중략)

세상의 어떠한 잘 아는 생활을 갖다가 놓아도, 경순에게는 갓난이의 팔 하나 뽑아놓아 주는 이 생활을 감히 따를 자가 없는 것이었었다.

경순의 생활의 기준과 코스는, 그리하여 스스로 결정이 되었고, 제풀로 벌써 잘 진행을 하고 있었다.<sup>10)</sup>

경순이 <주관을 한 번 객관>화하는 것은, 자아의 반성적 성찰과는 거리가 있다. 단지 모성의 표출을 ‘주관’으로, 그것이 자신에게는 본능임을 깨달았다는 인식을 ‘객관’이라 이름붙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주관의 객관화는 자기 위안, 합리화에 다름아니다. 경순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 <새로운 만족과 안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타자성을 다시 감추어버린 경순에게는, 몸을 뒤집다가 깔린, 아이의 팔 하나를 바로 해주는 일이 <세상의 어떠한 잘 아는 생활>과 비교되지 않을 대단한 것이다. 삶의 목표 또한 <내

10) 채만식, 『폐배자의 무덤』, 『채만식 전집』 7 (창작과 비평사, 1989).

시집 열 번 더 간 것보다 더 보람이 있게끔 아이를 잘 키우는 것으로 설정된다. 자신과 아이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러한 지점에서는, 삼종지도(三從之道)라는 이념이 보편성으로써 경순의 개인성을 압도하고, 타자로서의 이질성은 소멸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이 부분은 현실적 절망 또는 죽음과 더불어 새로운 어린 세대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무덤 가에서 경순은 울고, 아기는 <어머니의 입술이며 젖은 뺨을 가지고 놀기에 세계가 새롭다>고 서술한 부분을 근거로, <모든 것이 타락한 것으로 보였을 지라도 '유아' 만은 결백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 전망<sup>11)</sup>을 읽어낸다든지, <자기 분열을 죽음으로 초극하는 지식인의 형상을 그려내는 것, 권력의 직접적인 압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던 여성에게서 현실의 중압을 견디고 새로운 가능성의 추구를 위한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시각<sup>12)</sup>이 그러하다.

이러한 논의들은 그러나, 남성적인 서사적 관점을 전제로 한, '성숙한'<sup>13)</sup> 남성 주체의 시선이라는데 새로운 주목을 필요로 한다. 경순의 아기는 사내 아이이며, 경순은 아기를 <진리의 대장부>로 키워낼 것을 맹세한다는 점이 이미 공인된 사실이기에, 그곳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때 경순은 탈성화(desexualising)된 모성적 존재이다. 생식을 위한 성, 가족을 위한 성, 민족을 위한 성을 담보하는 존재로서, 이른바 근대권력의 포획장치에 종속된 개인일 뿐이다.<sup>14)</sup> 한 연구자가 스스로 지적한 바처럼 <강한 생명체의 애착을 보이는 경순은 동시에 자신이 생명의 주체세력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sup>15)</sup>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없이 '희망'을

11) 이상갑, 『채만식 연구 - '소년' 모티브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 1987).

12) 방민호, 『채만식문학에 나타난 식민지적 현실대응양상』 (서울대 박사, 2000).

13) 소설은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발견하려 떠나는 '성숙한 남성의 형식'이라는 루카치의 명제는, 근대 소설의 의미와 성(性)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14) 아드리엔느 리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평민사, 1995) 8장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1) 2장 참조.

읽어내고자 하는 것은, '문학=남성의 것'<sup>16)</sup>이라는 견고한 근대적 담론을 되풀이하는 일일 것이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채만식의 또다른 작품에서는(『불효자식』, 1925) 지식인 남성 주체가 아편 중독자인 아들의 방탕한 생활과, 남들이 매도하는 자식을 감쌀 수밖에 없는 모정을 보여주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들 칠복은 이미 심각한 아편 중독상태이어서 어찌해도 새 생활을 시작하기란 어렵다는 것, 어머니 최씨부인은 아편을 피울 걸 알면서도 칠복에게 돈을 주는 등 <절대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할 때 생기는 모순이 남성 주체 '나'로 하여금 착잡한 심정에 잠기게 하는 것이다.

한편 『폐배자의 무덤』에서, 배제된 여성 타자를 지켜보는, 경택(경순의 오빠)의 태도가 동정→ 긍정 → '경멸' 과 '조소' → '환멸의 반동'으로 변화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경택은 과부가 된 누이를 애처로와 하다가, 아이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누이를 <진리의 어머니>라며 애정어린 농담으로 긍정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 경택은, 아이를 안고 <내 새끼, 내 강아지>라 어르는 누이를 보며, <강아지라는 말 그것에서 명색없는 생명, 쓰잘데 없는 생명이라는 것을 연상>한다. 이후 경택은 누이에게 <전도부인과 같은 일종의 경멸을 느끼고서 조소를 해주는 조롱>을 그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이 느꼈던 감동과 애정을 <환상>이라 규정하고, <환멸의 반동>을 크게 느낀다.

경택의 태도가 변화한 이유는, <생명에 대한 부정>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 부정은, 무수히 많은 생명의 창조 중에서 과연 필요한, 의미있는 것이 몇이나 될 것이며, 심지어는 무가치할뿐더러 악의 근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긍정할 수 있느냐는 데서 기인한다. 이와같은 인식은 타자성을 제거하

15) 이상갑, 위의 논문.

16) 『지위진 여성, 반쪽의 문학사』(황도경, 『한국근대문학연구』, 태학사, 2000년 창간호)에서는, 기존의 문학 이론이나 문학사에서 나타난 남성중심주의 시각의 구체적 인 실례가 자세히 드러나 있다.

고, 동일성 담론으로 완전히 동화된 타자에 대한 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이의 <강아지>라는 말 한마디에서 급격하게 인식전환을 이루어내고, 감정적인 토로를 쏟아낸 것이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택의 비판은 병든 자신의 처지를 자학하고, 스스로가 무력한만큼 부정적인 것을 경멸하고 냉소하는 데 그칠 뿐 사실상 '비판' 으로서의 역할은 해 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3) 여성 타자의 발현과 탈근대적 주체 구성의 가능성

제국주의에 억압당하고 있는 주체가 그 담론으로부터 탈주하기 위해서는 타자성이 필요하다. 동일성의 담론을 깨뜨릴 수 있는 이질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 존재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체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이질적인 타자를 배제하고 동일화하는 것-주체중심주의가 드러나기도 한다. 주체-타자의 관계가 남편-아내일 때, 그것은 한층 직접적이라는 사실을 「처자」, 「근일」을 통해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남편-아내의 관계에서, 여전히 남편의 영역에 아내가 포섭되어 있지만, 미약하나마 타자의 이질성이 드러나는 경우, 그것은 억압된 주체의 저항을 유별시키는 계기가 된다. 「처자」(1944)에서 이내는 남편이 자신 앞에서만 배짱 좋고, 능청스러우며,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더라도, 그저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간혹 다른 일로 화가 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남편의 능청과 궤변에 말대꾸를 해보지만, 결국 아내는 <내 참, 기가 맥혀>라며 <그만 웃어버리고> 말 뿐이다. 그러나 아내는 보채는 아이를 달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곤 한다. 아내는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잠 들고 깨고 하는 것까지 너의 아버지만 닮을 건 무엇 있느냐고, 신경이 벌써부터 이렇게 예민하다간 자라서 직업도 너의 아버지를 딸치 않겠느냐고, 부디 그러지 말라고, 우리 양(亮)이는 소설 쓰면 엄마 착한 아들 아니니라고, 늘 하는 소리를 자장 노래삼아 또 뇌)곤 한다.

아내는 자신의 속마음을 노랫가락처럼 압축되어 반복할 수 있을 만큼 수

없이 드러냈으며, 그 노래의 뜻을 남편이 아는지의 여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남편은 1인칭 화자로서 아이를 달래는 부인을 묘사하고 있고, 〈이유는 서로 다르나, 자식으로 하여금 **문학**을 시키지 말고 싶은 생각은 나 역시 아내와 일반〉이라 진술함으로써, 이미 아내의 생각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처자」의 아내는 전체적으로는 남편의 동일성에 종속된 타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렇게 제한적이거나<sup>17)</sup> 자신의 생각, 즉 타자로서의 이질성을 드러낸다.

이와 같은 타자의 이질성의 노출은, 주체로 하여금 타자성을 인식하게끔 하고, 그것은 **억압**받는 주체를 **저항**하게 만들어준다. 이때 주체의 저항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sup>18)</sup> 주체가 동일성의 담론을 깨트리기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산적」(1929)에서 주체가 타자의 이질성을 받아들이는 모습 역시, 억압에 **대항**하는 힘의 **작용**을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아내의 엉뚱한 행동에 대해, 왜 그러했는지를 캐묻고, 충동적이거나 아내의 뜻에 **합의**하는 남편은, 타자를 배제하는 동일성의 담론으로부터 벗어난 위치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안해는 나를 치어다 보고 고개를 숙이며 썩 웃었다. 계집의 눈물이란 과연 값이 험하다. 그래도 삼 년이나 같이 산 남편이라고 허물이 없대서고 꼴에 또 여자의 본능으로 애교 찻것을 부리는지 고개를 가웃가웃하고 썩썩 웃기만 하였다. (중략)

“허마 뭘 그래. 지금 가지구 가야 물러주지두 았구 또 그렇게 먹고 싶은 거니까 해먹지 뭘.”

17) 아내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직접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대신, 자장가를 중얼거림으로써 속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18) 주체의 저항은 정확히 말하자면, 타자의 이질성이 아주 미약하게 드러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주체의 새로운 반응이다. 본고에서는 이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저항’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일은?”

“내일은 또 어떻게 헐 셈치구…… 허허허허.”

나는 뱃속껏 유쾌하게 웃었다. 사실 유쾌하였다.

여편네도 같이 웃었다.

양념도 변변치 못하건만 산적 맛이 퍽도 맛이 있었다.<sup>19)</sup>

가난해서 밥을 굶던 부부는 물건을 전당잡히고, 쌀을 사기로 한다. 전당포에서 돈을 받은 아내는, 산적 굽는 냄새에 홀려 자기도 모르게 고기를 사는데 돈을 다 쓰고 만다. 집에 돌아와서야 아내는 쌀 사는 것을 깜박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움과 무렵함과 슬픔>으로 <줄기같은 눈물>을 흘린다. 엉뚱한 행동을 한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나무라는 대신, 차근차근 경위를 묻는 남편의 태도에 아내는 이내 눈물을 거둔다. 울다가 금세 웃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값 험한 계집의 눈물과 꿀갯잠은 애교라며 아내를 비아냥 거린다. 이때 남편의 태도는 타자를 지배하고 있는 주체의 우월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적 굽는 묘사를 하는 아내의 말에 <솔깃하여서> 맛장구를 치고, 차츰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리라 이해하기 시작하는 남편은, 타자의 이질성을 인식하는 주체의 태도를 보여준다. 타자의 이질성을 밀건하게 된 주체는, 타자의 논리를 수용하는 데까지 나간다. 비록 그것이 내일 일은 생각지 않고, 그냥 먹고 보자는 충동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사실 유쾌>하게 웃으며, <퍽도 맛>있게 산적을 먹었다는 주체의 진술은 자신의 동일성에서 벗어났음을 입증한다.

「민족의 죄인」(1948)은, 타자의 이질성과 억압된 주체의 저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 자전적 경향이 짙은 주인공 ‘나’는, 해방 후 일제 강점 하에서 친일 활동을 했음을 괴로워하고 있다. 당시의 친일행위와 상황에 이끌려, 부정도 못하고 긍정도 못한 채 <겉으로 복종이나 하는 용렬

19) 채만식, 「산적」, 『채만식 전집』 6 (창작과 비평사, 1989).

하고 나약한) 것이었던 것처럼, 지금의 괴로움도 실은 반성도 변명도 아닌 어정쩡한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sup>20)</sup> 현실 생활 보전을 위해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나 죄임을 알고는 있다는 인식 정도로는, 해방 직후의 '나'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제대로 된 소설도 쓰기 힘들고,<sup>21)</sup> 마땅히 다른 생활 방도도 없는 상태에서 '나'는, '윤'의 직설적인 비판(친일 행위에 대한)을 받는다.

이때 '윤'의 이타성은, 이질성으로써 주체와 관계를 맺지 못한다. '윤'의 강렬한 이질성은 극단적으로 주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며,<sup>22)</sup> 자기 소멸의 위기에 놓인 주체는 본능적으로 타자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기 보존 본능이라 할 만한, 이런 주체의 심리는 작품 내에서 '김군'을 통해 어설프나마 '윤'의 비판을 재비판하고, 나에게서는 보름동안이나 **앓을** 만치의 병을 주고, 시골로 내려가자는 결심을 하게끔 **작용**한다.

20) 지금까지 「민족의 죄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그 배후의 놓인 작가의 의식의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고, 따라서 그것이 반성인가 변명인가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윤식(「민족의 죄인과 죄인의 민족」, 『수필문학』, 1976.3)과 삼지수승(「굴복의 말과 극복의 말」, 『식민지 시대의 문학연구』, 깊은샘, 1980)이 대표적인 논자다. 정호웅은(「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연구」) 김윤식과 삼지수승의 논의를 진전시켜, 「민족의 죄인」은 자기변명의 논리를 펼친 끝에 민족적 자기비판론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21) 해방 직후에 「맹순사」를 쓰고 나서, 지금은 소설을 쓰기 힘들다고, 「민족의 죄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다. 「맹순사」는 친일 경험을 했던 '맹순사'를 통해,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은 구별할 수 없는 **혼탁한** 상황임을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그 풍자의 형식은 냉소에 그칠 뿐, 주체의 적극적인 대응이라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 자기 풍자 - 자기비판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제한성이 한계로 지적된다.

22) 윤은 김(P 출판사 주인)과 내 앞에서, 친일협력자 비판을 신랄하게 한다. 예를 들면 "웬만한 놈은 죄다 쓸어 숙청은 해야지, 관대했다간 건국에 큰 방해야. 38 이북에서 하듯기 해야만 해. 그러구 난 누가 무슨 말을 하거나, 그 비루하구 암체빠지구 뻔뻔스럽구 한 인간성 그제 싫어. 소름이 끼치도록 싫구 알미워. 그런 것들과 조선 사람이라는 이름을 같이 한다는 것까지도 욕스럽고 불쾌해"라며 원초적인 적의, 혐오를 내뿜는다.

‘김군’의 재비판은 ‘윤’의 비판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논리라는 점, 현 상황에 대처하기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수준일 뿐이다. 이는 스스로도 인식하는 바, ‘김군’은 무엇을 비판했다기 보다는 그저 <나를 위해 윤에게 싸움을 걸었던> 정도였다. 그러나 병과 낙향 결심은 ‘윤’에 대해 주체가 행하는 최대한의 대응이나 다름없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질병은 <총체적 조화의 파괴>이고, 근대적 의미에서는 <외적 존재(세균-인용자)의 침입에 의한 세포 수준의 이상>으로 정의된다.<sup>23)</sup> ‘나’의 질병은 ‘윤’의 비판에 따른 충격으로 신체의 조화가 깨졌거나, ‘윤’의 비판을 세균의 침입과 같은 수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병이 본능적인 대응의 수준이라면, 낙향은 ‘윤’과 같이 주체를 혼란시키는 요소가 없는, 자족적인 공간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주체의 결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자기 동일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주체의 본능적 욕구이기도 하다.

낙향을 결심한 ‘나’는 아내에게 시골로 내려가자는 말을 꺼낸다. 아내는 갑작스런 ‘나’의 이야기에 우선 현실적인 고려를 먼저 한다. 아내는 <내려가야 사정이면 내려가는 것이지만> <내려가니, 가서 살 도리>가 없다는 판단에 뒤이어 아이들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한다.

“죽은 심 치면 못 참을 건 있으며 못 견딜 건 있어요?”

“.....”

“당신, 죄지셨잖아요? 그 죄, 지신 채 그대루, 저생 가지구퍼요?”

안해가 나를 죄인이라 부르기는 처음이었다. 그는 울면서 그 말을 하였다.

나를 죄인이 아니라 여기려고 아니하는 이 낱아빠진 안해가, 나는 존경스럽고 고마웠다.

“당신야 존재가 미미하니깐 이딴에 민족의 심판을 받지도 못하실는진 몰라두, 가사 받아서 벌을 당한다구 하더래두, 형벌이 짚 속량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23) 조형근, 『근대 의료 속의 몸과 규율』,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편, 『근대성의 경계를 찾아서』(셋길, 1997).



“.....”

“이를 악물구, 다른 것 다 돌아볼라 말구서 저것들 남매 잘 길러 잘 교육시키구, 잘 지도하구 해서 바른 사람 노릇 하도록, 남의 앞에 떠뎨한 사람 노릇 하도록 해줍시다. 아버지루써 자식한테 대한 애정으루나, 죄인으루써 민족의 다음 세대에 다 속죄 할는 정성으루나.”

“.....”

“어미 에비의 허물루, 그 어린 자식한테까지 미쳐가서야 어린것들을 위해 너무 두 슬픈 일이 아녜요?”

“.....”

“원고 쓰실라 마세요. 차라리 영리회사 같은 데 취직이래두 하세요. 것두 싫으 시거든 얼마 동안 집안에 들앉아 기세요. 내가 박물 보통이래두 이구 나서리다.”<sup>24)</sup>

아내는 낙향이 과거 친일행위에 대한 죄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형벌을 받더라도 그것이 죄를 속량해주시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별다른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자식교육 = 부모의 도리 + 민족의 다음 세대에 속죄하는 것’이라는 등식은 얼핏 타당한 것같으면서도, 자기합리화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아내가 낙향을 만류함으로써 주체와 타자(외부세계 포함)의 교류를 지향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낙향은 곧 타자성의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며, 거기에서는 <죄, 지신 채 그대루, 저생> 같 도리밖에 없다고 아내는 인식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내는 주체의 타자성 확보를 위한 노력(박물장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만큼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이다. 이와 같은 아내의 태도 표명은, 타자의 이질성이 발현되는 지점이라 할 것이다. 「처자」의 아내가 자장가 부르는 것, 「산적」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남편의 질문에 대답하는 일에 비한다면, 「민족의 죄인」에서 아내는 타자성을 드러내기에 보다

24) 채만식, 「민족의 죄인」, 『채만식 문학 전집』(창작과 비평사, 1989).

적극적이다. 이 적극성은 주체에게 이후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현실적인 이익<sup>25)</sup> 때문에 동맹휴학을 피해 온 조카에게, 남편은 〈안해까지도 질겁해 놀라도록〉 크게 꾸중을 한다. 조카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은, 단지 어른된 도리-올바른 길로 조카를 이끌고자 하는 심정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낙향을 만류하는 아내를 통해 타자의 이질성을 접한 주체가, 이전의 자신을 부정하는 인식까지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가 동일성의 세계에 함몰되는 위험을 자각하였다할지라도, 「민족의 죄인」에서 '나'가 원심력을 확보해 타자성의 세계로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작품 외적인 면에서는 작품 형식이 주체를 사회적 맥락 안에 위치 짓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sup>26)</sup>에서, 작품 내적인 면에서는 주체-타자의 위치 설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타자의 이질성을 접하는 주체는 타자보다 절대적 우위에 위치해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 '나'를 죄인이라 부르며 낙향을 만류하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이 낱아빠진 안해가, 나는 존경스럽고 고맙다.〉고 느낀다. 타자의 이질성이 놀라움, 새로움, 충격으로 느껴지는 것은 대등한 위치에서 가능하다. 주체가 타사보나 우월한 위치에 있을 때, 타자의 이질성은 수용가능성의 여부, 혹은 그 이질성의 가치평가가 문제시될 뿐이다. 자신을 죄인이라 부르고, 죽은 썸 치고 견디라는 아내가 존경스럽고 고맙다는 '나'의 너그러움은, 주체가 상위상태에서 포용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타자의 이질성을 너그럽게 받아들인 주체, 즉 타자보다 우위에서 있는 주체가 자기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하게 문제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조카에게 한바탕 호통을 친 후, 주체는 〈무엇인지 모를 속 후련하고, 겸하여 안심되는 것 같은 것이 문득 느껴지고 있

25) 조카는 내일 모레가 졸업인데, 공부를 해야 상급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또 동맹휴학을 한다면 조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나'에게 설명한다.

26) 방민호, 앞의 논문.

음을 나는 스스로 거역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때 주체는 동일성의 세계에 함몰되지 않았음을 기뻐하고, 안심할 뿐, 자신의 동일성으로부터 벗어나 타자화된 주체로 변화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의 죄인」에서 타자의 이질성과 억압된 주체의 저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우월한 위치 설정은 타자화된 주체로의 변화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 3. 결론

현대 철학이 근대적 주체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 제시하는,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타자’에 대한 인식은,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논자로, 들뢰즈는 주체 개념을 아예 없애버리고 비인격적 익명성으로, 인간 아닌 것으로 비인칭 혹은 4인칭이라 불리는, 어떤 동일성도 전제하지 않는 파편적인 ‘특정한’ 조각들, 익명적 사건들, 요컨대 ‘차이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려고 한다. 레비나스의 경우 적극적인 표상활동을 통해 타자를 자기의 지평 위에 종속시키는 제국주의적인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타자의 도래를 통해 비로소 탄생하는 주체를 전망한다. 윤리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주체(레비나스)이든 주체의 종말(들뢰즈)이든, 이들의 공통된 입지점은 주체로 환원되지 않는 ‘타자’의 현존이다.

근대 문학 주체에게 ‘타자’ 또한 주체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가능성의 의미로 존재한다. 주체가 암묵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남성 주체로 설정되었을 때, 여성 타자의 의미는 한층 각별하다. 근대 체험과 식민지 체험이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지점에서 남성 주체는 근대·제국주의의 남성성<sup>27)</sup> 체

27) 근대를 남성의 서사로 보는 관점은 『근대성과 페미니즘』(리타 펠스키, 거름, 1998)의 서론과 1장 참조. 제국주의를 남성 서사로 보는 관점은 『제국주의』(박지향, 서울대출판부, 2000)의 7장 참조.

계와 같은 궤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궤도로부터 주체를 이탈시키는 힘은 타자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다. 타자가 가진 이질성은 중심으로 보편화된 근대 세계, 특히 제국주의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일제 강점의 세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게끔 해준다.

채만식의 소설에서 남성 주체와 관계하는 여성타자의 양상을 고찰한 것도, 근대적 식민지 주체가 어떻게 타자를 인식하고, 탈근대적 주체를 구성할 추동력을 확보해나가는지의 문제를 살펴본 것에 다름 아니다. 주체-타자 관계의 예로 남편-아내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아내의 위치에 있는 여성 타자는 대체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하게 드러났다. 여성 타자의 부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양상은, 그러나 부재란 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타자가 부재한다고 할 때, 이는 그가 존재하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가 인식할 수 없는 곳, 인식하지 못하는 거리에 타자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sup>28)</sup> 주체가 감지할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타자, 가리워진 타자는, 주체 스스로 타자를 자신의 영역에 동일화시킨 결과였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남성적 질서, 남성적 세계의 가치를 체현하는 존재일 뿐일 때, 주체에게 타자는 부재의 상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 타자가 자신의 이질성을 발현하고, 남성 주체가 그 타자와의 거리감을 인식할 때, 비로소 주체와 타자는 근대적 동일성의 기반을 벗어날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비록 그 가능성이 즉흥적이고 감상적인 수준에서 주어지거나, 여전히 계몽적이고 우월한 주체의 위치에 의해 굴곡을 겪게 될지라도, '차이'에 대한 인식은 변화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있다.

남성적 세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손자에게 들려주는

28) 사르트르는 부재는 인간 존재 상호 간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하나의 위치와 그 위치를 접할 수 있는 인간 존재와의 관계를 표현하지, 존재와 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 지성사, 4장 참조).

할머니는, 〈날이 새도록 들은들 끝이〉 나지 않을, 이야기<sup>29)</sup>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야기의 되풀이, 서사 담론의 힘에 대한 믿음은 〈상전(桑田)이 벽해(碧海) 되고, 벽해(碧海)가 상전(桑田)이 되〉<sup>30)</sup>는 순환적 시간의 전망 속에 존재하고, 그곳에서 여성타자에 대한 인식의 맹아들이 어떻게 자리잡을지를 우리는 상상해낼 수 있다.

■ 필자 : 경희대학교 강사

29) 채만식, 「역사-총기좋은 할머니」, 『채만식 문학 전집』(창작과 비평사, 1989).

30) 채만식, 위의 글.

**Abstract**

**Construction as a deconstructive subject and  
recognition of the female other in Choi Man-Sik's novels**

Kim, Yeon-Sook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how the male subject recognizes the female other and how he is constructed as a deconstructive subject through the marital relationship in Chai Mansik's novel.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e subject and female other, the meaning of reality could be reconstructed not as a modern reality of a colony experienced by an ordinary male adult, but as a discursive field of more complicated mutual conflicts and diverse responses.

First of all, the oppressed colonial male subject excludes heterogeneity of female otherness and identifies his wife with himself and subjugate her completely. Also, the female subject complies with the male dominating order, so called father-husband-son system and eliminates her own singularity. However feeble heterogeneity of the other is, it triggers the oppressed female subject's resistance if the wife is included in her husband's scope on the whole. This heterogeneity of the other is manifested in part when the wife expresses her own idea or reveals her concrete and pragmatic attitude different from her husband.

The subject and the other cannot have the possibility to escape from the modern homogeneity until the female subject manifests her own heterogeneity and the male subject recognizes the distance between the couple. Even though the possibility is given in impromptu and sensa-

tional level or still largely winds along the enlightened and superior male subject position, the recognition of the 'difference' is meaningful in itself as it opens the way to change.